

1. 들어가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별것 아니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화자가 표현한 ‘작은 선물’이 정말로 “물리적인 크기가 작은 선물”, 즉 “물리적 소형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여기서 ‘작-’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평가가 반영된 의미로서 자신의 선물에 대하여 청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완곡히 표현함과 동시에 모종의 겸양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어휘의미론적으로 ‘작은 선물’, ‘작은 자리’, ‘작은 역할’ 등에서의 ‘작-’에 대하여서는 “작음[小]”의 하위 의미 범주로서 일종의 평가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평가적 소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서는 “작음[小]”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현대한국어의 ‘작다’와 ‘적다’로 이어지는 ‘적-’와 ‘작-’(이하 ‘적다’類)뿐만 아니라,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된 ‘헝-’와 ‘혹-’, 그리고 ‘학-’(이하 ‘헝다’類)도 존재하였다.¹⁾ 중세한국어에서 “작음[小]” 의미 영역은 현대한국어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어휘적 분포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물리적 소형성”은 주로 ‘적다’류에 의해 표현된 반면, ‘헝다’류는 “평가적 소형성”을 비롯하여 “극미적 소형성”,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 등 보다 세분화된 의미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세한국어 ‘헝다’류의 의미를 세분하고, 그 공시적 양상과 통시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찍이 남성우(1990: 28)에서 지적하였듯이, ‘적다’류와 ‘헝다’류는 대개 한문 원문 ‘小’에 대응하여 동의어로 이해되어 왔다.

(1)

가. 마릿 기리 몸과 굴뚝며 키 적도 크도 아니히고 슬히 지도 여위도 아니히니라 <월인석보₁₄₅₉ 1:26ㄴ>

나. 제 庫房에 빠리라 헝야 뒷던 흘골 우회여 부터의 받즈보려 헝니 키 작골적 제 번 올미 毗闍耶 | 라 호리를 드려 닐오디(即取倉中土爲穀者 便以手探欲用施佛 身小不及語一小兒) <석보상절₁₄₄₇ 24:8ㄱ>

다. 또 효근 臣下 | 님금의 괴이스와(亦如小臣媚至尊) <두시언해₁₄₅₉ 3:70ㄴ>

라. 小王은 헝근 王이라 <석보상절₁₄₄₇ 11:22ㄱ>

특히 (1가, 나)에서와 같이, ‘적다’류는 모두 주어 ‘키’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작-’와 ‘적-’의 동의성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작음[小, small]”은 형용사의 핵심 의미 유형 중 하나인 차원 의미(DIMENSION)로서 보다 세분된 차원 의미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Dixon 2004 참조). 다시 말해, “작음[小, small]”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물

1) ‘쪼고맏’, ‘쪼고매’, ‘쪼곰’ 등을 통하여 ‘*쪼-’라는 어형을 재구할 수 있겠으나, 이외의 활용 및 파생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리적인 크기의 작음”에서 더 나아가 여러 하위 의미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중세한국어 ‘혁다’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적다’류와 ‘혁다’류, 이 두 유형의 어휘가 모두 한문 원문 ‘小’에 대응하더라도, ‘적다’류와 ‘혁다’류의 의미 범주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세한국어에서 ‘小’에 대응하는 ‘적다’류는²⁾ 주로 (1가, 나)와 같이,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크기의 작음”을 나타내는 반면, ‘혁다’류는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의 작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1다)의 ‘효근 臣下’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신하”가 아니며, (1라)의 ‘혁근 王’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왕”이 아니다. 여기서 ‘혁다’류가 나타내는 ‘小’의 의미는 앞서 ‘작은 선물, 작은 역할’ 등에서 보았던 ‘평가적 소형성’으로서 “신하로서의 겸양 표현(1다)” 혹은 “불교의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 즉 세속을 가리키는 표현(1라)”이다.

(2)

가. 纖은 혁글씨라 <법화경언해₁₄₆₃ 2:196ㄴ>

나. 山樞 효근 지지 <구급간이방언해₁₄₈₉ 3:56ㄴ>

더 나아가 중세한국어의 ‘혁다’류는 “평가적 소형성” 이외에도 ‘적다’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금 더 세분화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먼저 (2가)와 같이 ‘纖’에 대응하여 “극미적 소형성”으로서 단순히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더 가늘고 자잘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2나)와 같이 “중차 및 분류적 소형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효근 지지’는 단순히 “크기가 작은 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山樞’, 즉 일반적인 ‘치자’보다 열매의 크기가 작은 ‘산치자’라는 다른 열매 품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종래에 ‘혁다’류를 ‘적다’류와 함께 동의어로 분류한 시각에서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중세한국어 ‘혁다’류의 의미를 ①평가적 소형성, ②극미적 소형성, ③중차 및 분류적 소형성 의미로 세분하여 어휘의미론적으로 정밀하게 기술하고자 한다(2장). 아울러 ‘적다’류가 다양한 파생형과 활용형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혁다’류는 대부분 ‘효근’ 혹은 ‘혁근’ 등과 같은 관형사형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혁다’류가 가지고 있는 통사적 제약성은 ‘혁다’류의 의미가 앞서 주목한 세 가지로만 제한되는 양상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통시적 검토와 문법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3장). 끝으로는 요약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4장).

2) 물론 중세한국어에서 ‘적다’류는 ‘小’뿐만 아니라 ‘少’에도 대응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중세한국어 ‘혁다’류는 “적음[少]”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작음[小]”의 의미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중세한국어 ‘혁다’류의 의미를 세분하여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적다’류를 언급할 때에는 오로지 “작음[小]” 의미를 가지는 경우만 언급하고자 한다. 중세한국어에서 “적음[少]”를 의미하는 ‘적다’류는 중세한국어 ‘혁다’류의 의미를 세분하여 기술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와 ‘작-’가 현대한국어로 오면서 각각 “적음[少]”과 “작음[小]”의 의미로 분화되는 과정은 ‘혁다’류의 소멸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적다’류의 의미 분화와 재편 과정은 지면을 달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적다’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중세한국어 ‘혁다’류의 의미를 세분하여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2. 중세한국어 ‘헝다’류의 의미 분석

2.1. 평가적 소형성

본고에서 중세한국어 ‘헝다’류의 의미 영역으로 설정한 “평가적 소형성”이란 대상의 실제 물리적 크기를 나타내기보다, 그 대상의 가치, 위상, 도덕성 또는 사회적 지위를 낮추어 파악하는 의미 기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작음[小]”의 의미가 크기나 규모와 같은 객관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자 또는 텍스트 내부의 가치 판단 및 평가와 결합하여 “보잘 것없음”, “미천함”, “낮은 지위”, “사소함” 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따라서 “평가적 소형성”은 주로 중세한국어의 ‘적다’류를 통하여 표현되는 “물리적 소형성”과 구별되며, “작음[小]”이 가치평가의 영역으로 확장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세한국어 ‘헝다’류가 “평가적 소형성”을 나타내는 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가. 효근 선비도 董卓을 업시우고 知識 잇느니는 符堅을 웃더라(小儒輕董卓 有識笑符堅)
<두시언해¹⁴⁸¹ 20:15>

나. 허근 선비를 보시고 御座에 니르시니 敬儒之心이 었더흐시니(引見小儒 御座遽起 敬儒之心 云如何已) <용비어천가¹⁴⁴⁷ 9:33>

다. 님글 德은 브름 곧고 효근 百姓은 풀 곧흐니 <월인석보¹⁴⁵⁹ 2:72>

라. 효근 兒女를 아스라히 憐愛호노니 長安 스랑호물 그르디 못호얏느니라(遙憐小兒女 未解憶長安) <두시언해¹⁴⁸¹ 12:4>

라’. 此는 想其妻也 | 라 <두시언해¹⁴⁸¹ 12:4>

(1가)의 ‘효근 선비’와 (1나)의 ‘허근 선비’는 모두 한문 원문 ‘小儒’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가)의 ‘小儒’는 ‘有識’과 함께 두보 자신을 낮추어 지칭한 표현으로 파악된다.³⁾ 여기서 ‘小’는 단연 ‘儒’의 물리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학문적·정치적 위상 또는 사회적 존재감을 낮추어 제시하는 의미이다.⁴⁾ 다음으로 (1나)의 ‘小儒’는 고려 충선왕의 세자 시절 스승인 정가신과 민지를 가리키며 제후의 신하이지만 유학자로서 존중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박창희 2015: 644-645 참조). 이에 (1가, 나)의 ‘헝다’류는 “작음[小]”이 실제 물리적인 크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위상과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된 “평가적 소형성”의 예로 볼 수 있다.

(1다)는 ‘風俗’에 대한 협주인데, ‘바람이 풀 위에 불면 다함께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임금이 하시는 일을 백성이 다 본받음과 같으므로 백성이 모두 배우는 일을 풍속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효근’은 임금과 대비되는 백성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1라)의 ‘小兒女’는 협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향에 있는 두보의 아내를 가리킨다. 즉, ‘효근 兒女’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아내”가 아니라 “애뜻하고

3) 小儒有識, 公自謂也. (『杜詩詳註』 卷20)

4) 물론 여기서 두보 자신을 ‘小儒’로 지칭한 것은 단순한 겸양 표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董卓과 符堅으로 비유된 安祿山과 史思明 반란 세력의 무모함을 판단하고 경멸하는 도덕적인 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며 마찬가지로 “작음[小]”이 “애정”이라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된 “평가적 소형성”의 용례로 파악할 수 있다.⁵⁾

(2)

가. ㅎ오사 ㅅㅅ야쇼문 時節入 사르미 아첨논 배니 물 효근 사르미 하로미 能히 집도다(獨醒時所嫉 群小謗能深) <두시언해₁₄₈₁ 21:35ㄴ>

나. ㅅ ㅅ술히 효근 사르미 ㅎ 바블 어드면 반드시 몬져 어버시를 머기느니 엇데오(且如閭閻小人이 得一食하면 必先以食父母하느니 夫何故오) <번역소학₁₅₁₈ 7:43ㄱ>

다. ㅅ ㅅ을 효근 사름 곤튼 이 ㅎ 음식을 어드면 반드시 몬져 ㅅ 어버이를 머기느니 엇딘 연고오 <소학언해₁₅₈₈ 5:74ㄴ>

(2가)는 ‘聞袁判官自來欲有按問’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袁判官이 裴南部의 일을 조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보가 지은 시이다. 배남부는 자신의 청렴한 절개로 인하여 무고를 당한 상황인데⁶⁾, 원판관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잘 헤아려 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2가)의 ‘효근 사름’은 배남부를 비방한 소인배들을 가리키며, ‘효근’은 신체적 크기가 아닌, 청렴한 인물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의 도덕적·인격적 낮음을 표시하는 “평가적 소형성”으로 볼 수 있다. (2나)는 사람들이 형제의 사랑을 알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ㅅ술히 효근 사름[閭閻小人]’조차 밥이나 옷을 얻으면 먼저 부모에게 드린다고 언급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효근 사름’은 “물리적으로 작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閭閻]’에 사는 신분상 낮은 계층의 백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평가적 소형성”으로 판단된다.

‘헝다’류가 종교적 배경에서 “평가적 소형성”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가. 비늘 ㅅㅅ시마다 효근 벌에 나아 모믈 썰썩 썰버 受苦하다니(諸鱗甲中 各生小蟲 啞齧困苦) <월인석보₁₄₅₉ 2:51ㄱ>

나. 녀느 龍이 네 가짓 熱惱ㅣ 잇거늘 이 龍은 업스니라 네 가짓 熱惱는 金翅鳥ㅣ 먹는 苦와 姪欲 行흠 時節에 本來入 몸 도로 드외는 苦와 비느레 헝근 벌에 잇는 苦와 더븐 물애 모매 븐는 苦왜라 <석보상절₁₄₄₇ 13:8ㄱ>

다. 귀 먹고 迷惑고 발 업서 그우녀 비로 녀 한 헝근 벌에의 ㅅ라 머구미 드외야 ㄴㅅ밤애 受苦하야 썰 ㅅㅅ시 업스리니(龔駘無足하야 蜿蜒腹行하야 爲諸小蟲之所啞食하야 晝夜受苦하야 無有休息하리니) <법화경언해₁₄₆₃ 2:165ㄴ>

라. 각시 ㅅ 비엔 큰 벌에 骨髓엔 효근 벌에 미되는 열원 벌에러니 각시 ㅅ 가온딘 가히 엇게엔 ㅅㅅㅅ 여스 앞뒤헸 아히 할미러니 <월인천강지곡₁₄₄₇ 상:25ㄴ>

5) 이처럼 ‘헝다’류가 “애정”의 의미까지 나타내는 양상에 대하여서는 지소어(diminutive)의 의미가 단순한 “작은 크기”에 한정되지 않고, 애정·동정·친밀성 등의 화용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Jurafsky(1996: 551-553)의 논의가 참고된다. 이 논의에서는 지소어의 핵심을 ‘small/child’와 관련된 의미망으로 파악하고, 아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이 반복적인 추론을 거쳐 지소어의 애정 의미로 관습화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작음[小]”이 물리적 크기를 넘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평가를 드러낼 때, “겸양”, “사소함”, “보잘것없음” 이외에도 “애정”과 같은 긍정의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6) 此言裴君以清節受誣(『杜詩詳註』卷22)

(3가)는 梓潼帝君이 부처를 만나 자신이 전생에 고통을 받다가 교화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자신이 전생에 과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용으로 태어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효근 벌에[小蟲]’은 업보로 인해 몸에 생겨 고통을 주는 벌레이다. (3나) 역시 용에게 있는 네 가지 熱惱 가운데 하나로서, 비늘 속에 있는 ‘혀근 벌에’로 인한 고통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3다)에서는 경전을 비방한 자가 지옥을 거쳐 축생으로 태어나고 여러 ‘혀근 벌에’에게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라)는 마왕 파순의 세 딸이 보리수 아래에서 수양하는 부처를 현혹하는데, 부처가 세 딸들을 겨누자 그들의 몸에 벌레가 가득차고 아래로부터 벌레들이 엉겨 몸을 빨아 먹는 장면이다. 이처럼 (3)의 ‘{효근, 혀근} 벌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작은 벌레가 아니라,⁷⁾ 불교적 세계관 안에서 업보로 인한 고통을 제공하는, 즉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로서 종교적인 “평가적 소형성”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서는 ‘헝다’류가 “평가적 소형성”을 나타낼 때, ‘굵-’와 반의 관계를 보이는 듯하다.

(4) 슬프다 時俗이 양지 두피 ㄹ리요물 즐기느니 쯔 **효근** 臣下 | 님금씩 괴이스 와 政化 | 어그르쳐 큰 웃드메 외어든 안자서 나라히 기우러가물 보고 둔거운 恩惠를 受호미 곤도다(惜哉俗態好蒙蔽 亦如小臣媚至尊 政化錯迕失大體 坐看傾危受厚恩) <두시언해¹⁴⁸¹ 3:70ㄴ>

(4') **굵근** 臣下 四千을 두겨시며 여원 小國이오 八百 ㅁ술홀 거느려 겨시며 큰 白象 五百을 뒷더시다(王有四千大臣 主六十小國 八百聚落 有大白象五百頭) <월인석보¹⁴⁵⁹ 20:62 ㄱ>

(4)은 간신이 임금의 가리고 막는 것을 풍자한 시로서 ‘小臣’, 즉 ‘효근 臣下’가 임금의 마음을 고혹하여 정사를 그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⁸⁾ 여기서 ‘小臣’은 단연 물리적인 크기가 작은 신하가 아닐뿐더러, 단순히 관직이 낮은 신하도 아니요 임금을 현혹하고 정사를 그르치는 신하를 가리킨다.⁹⁾ 한편 (4')에서는 ‘大臣’에 대한 언해로 ‘굵근 臣下’가 나타난다. 이때 ‘大臣’은 葉波國의 왕 濕波의 세력과 정치적 위상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큰 신하”가 아니라 “관직상의 지위와 정치적 비중이 높은 신하”를 뜻한다. 이에 ‘효근 臣下’(4)와 ‘굵근 臣下’(4')는 각각 낮은 위상과 높은 위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응하며, 이는 중세한국어 ‘헝다’류와 ‘굵-’이 평가적 의미 영역에서 반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외에도 ‘小國’ 또는 ‘小王’ 등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헝다’류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5)

가. 王이 大闕에 도라오샤 第一 夫人을 사ㅁ시고 일후를 鹿母夫人이라 헝시니 녀느 **혀근** 나랏 王이 다 와 賀禮헝습더라(爾時波羅奈王到宮殿已 拜爲第一 波羅捺 名曰鹿母夫人 諸小國王百官群臣皆來朝賀 王見此已 心生歡喜) <석보상절¹⁴⁴⁷ 11:30ㄴ>

7) 중세한국어에서 불교적인 맥락에서만 아니라 ‘헝다’류가 ‘벌에’를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용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종교적인 배경에서 ‘헝다’류가 사용된 것은 다소 관

8) 諷奸臣之壅蔽也。… 此惡其惑人而當去。俗好神奇，造爲不經之說，以蒙蔽人聽，猶小臣蠱惑君心，以致政舛國危，此痛言附會之誤人也。(『杜詩詳註』卷10)

9) 小臣，非小官也。凡事君不以道，雖官尊位崇，不害爲小臣耳。(『碧溪詩話』卷1)

나. 여원 小國이오 八百 ㅁ솔홀 거느렛더시니 王이 세 太子를 두샤되 다 ㅁ샷 혀근 나랏 王
을 사ㅁ시니라(主六十小國 八百聚落 王有三太子 皆作邊小國王) <월인석보¹⁴⁵⁹ 20:102
ㄴ>

다. ㅈ조 효근 나라해 가믈 놀라노니 ㅎ 디위 노펀 하늘해 묻고져 너기노라(頻驚適小國 一
擬問高天) <두시언해¹⁴⁸¹ 7:32ㄱ>

다' 此는 甫ㅣ 自敍ㅣ라 <두시언해¹⁴⁸¹ 7:32ㄱ>

(5가)는 마야부인의 전생 인연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波羅奈王의 第一夫人, 즉 鹿母夫人이
되는 맥락이다. 여기서 ‘혀근 나랏 王[小國王]’은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가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파라내왕의 정치적 위세 아래에 있는 약소국의 왕을 가리킨다. (5나)에서도 ‘혀근
나랏 王[小國王]’은 파라내의 태자를 가리키므로 (5가)와 동례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5다)는 (5다')을 참고하였을 때, 두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효근 나
라(小國)’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보 자신이 고국을 떠
나 巴蜀 일대를 떠돌며 유랑했던 지역을 의미한다.

(6)

가. 그ㅁ 會中엿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天 龍 夜叉 乾闥婆 阿脩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
羅迦 人 非人과 또 諸小王과 【諸小王은 여러 혀근 王이라】 轉輪聖王과 이 大衆들히 네
업던 이를 얻즈바 歡喜合掌하야 ㅎ ㅁㅁㅁㅁ로 부터를 보스밧더니(爾時會中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天龍 夜叉 乾闥婆 阿脩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迦 人非人 及諸小王 轉輪
聖王 是諸大衆 得未曾有 歡喜合掌 一心觀佛) <석보상절¹⁴⁴⁷ 13:12ㄴ-13ㄱ>

나. 小王은 혀근 王이라 <석보상절¹⁴⁴⁷ 11:22ㄱ>

다. 小王은 혀근 王이니 轉輪王 아닌 王이라 <월인석보¹⁴⁵⁹ 1:20ㄴ>

(6')

가. ㅎ 大臣 일후미 羅睺ㅣ라 호리 四兵 니르와다 大王을 주기습고 또 四兵을 ㅈ 나라해 보
내야 第一 太子 주기고 버거 第二 太子를 자브니 못 아기 앓이 ㉠저근 ㅈ 나랏 王이 ㅁ
외야 겨시더니 그 ㉡저근 王이 양직 ㅁ장 端正하시고(爾時 波羅奈大王有一所重大臣 名
曰羅睺 起四種兵一一所謂象兵 車兵 馬兵 步兵 伐波羅奈國 斷大王命 復遣四兵 往詣邊國
殺第一太子 次復往收第二太子 其最小弟作邊小國王 其小王者 形體殊大 端正殊妙) <월인
석보¹⁴⁵⁹ 20:102ㄴ-103ㄴ>

나. 粟散은 곧 나랏 저근 王이니 天下에 흐러슈미 조히 함 곧홀씨라(粟散은 卽邦國小王이니
散於天下호미 如粟之多홀시라) <능엄경언해¹⁴⁶¹ 6:15ㄴ>

다. 저근 나라흔 싸히 方이 五十里니(小國은 地方五十里니) <맹자언해¹⁵⁹⁰ 10: 10ㄴ>

(6)의 ‘혀근 王[小王]’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전
륜성왕을 비롯한 속세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종교적으로 위계가 낮은 왕”을 의미한
다. ‘小王’에 대하여 대부분 ‘혀근 王’으로 옮겨지지만 이외에도 ‘저근 王’으로 언해되는 경우
가 존재한다. 필자의 관전으로는 (6'가)와 (6'나) 이 두 개의 용례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
하여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첫째로, (6'가, 나)의 ‘적-’는 모두 “물리적인 크기의 작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6'

가)에서는 먼저 ‘저근 ㄱ 나랏 王[邊小國王, (6’가㉠)]’라는 표현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적-’은 ‘ㄱ[邊]’라는 구체명사를 수식하여 실제로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변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뒤이어 나오는 ‘저근 王[小王, (6’가㉠)]’ 역시 ‘저근 ㄱ 나랏 王[邊小國王, (6’가㉠)]’의 의미로서 ‘저근 (ㄱ 나랏) 王’을 나타내는 것이다. (6’나)는 ‘粟散’의 협주로서 불교에서 세속의 왕을 묘사할 때, “흩어져 있는 것이 곡식의 많음과 같음”이라 비유하는 표현이다.¹⁰⁾ 여기서 외형을 곡식과 같이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6’나)의 ‘저근 王’은 “(많은 곡식이 흩어져 있듯이)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세한국어 용례에서 오로지 (6’가)와 (6’나)만이 ‘혁근 王’이 아니라 ‘저근 王’으로 나타나고 (6’다)와 같이 나라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적-’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6’가, 나)의 ‘적-’가 ‘혁다’류의 “평가적 소형성” 의미로 사용되어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적다’류가 ‘혁다’류의 의미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이후 3장에서 언급하겠지만, ‘혁다’류는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거의 문증되지 않으며 대부분 ‘적다’류가 이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중세한국어부터 ‘혁다’류의 의미가 ‘적다’류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두 번째 해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¹¹⁾

2.2. 극미적 소형성

본고에서 중세한국어 ‘혁다’류의 또 다른 의미 영역으로 설정한 “극미적 소형성”이란 대상의 물리적인 크기가 단순히 작다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소형성보다 더 낮은 척도값에 놓이는 “미세하고 자잘한 작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작음[小]”의 의미가 물리적 크기의 축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매우 작고 가늘거나, 좁쌀과 같은 낱알에 비견될 만큼 미세한 크기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극미적 소형성”은 주로 중세한국어의 ‘적다’류를 통하여 표현되는 일반적인 “물리적 소형성”과 구별되며, ‘혁다’류가 細, 纖 등과 대응하는 용례에서 확인되는 미세하고 가느다란 외형 혹은 입자의 자잘함을 설명하기 위한 하위 의미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세한국어 ‘혁다’류가 “극미적 소형성”을 나타내는 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7)

가. 시긋병 ㅎ야 ㅁㅅㅁ 답답ㅎ거든 ㅁ렛 효근 잇글 죇두드려 ㅼ쑤 ㅼ을 ㅁ그라(天行病心悶 水中細苔 【ㅁ렛 **효근** 잇】 擣絞汁服) <구급간이방언해¹⁴⁸⁹ 1:108 ㄱ>

10) 속산왕(粟散王): 마치 좁쌀을 뿌려 놓은 것 같은 여러 작은 나라의 왕. (『시공불교사전』)

11) “평가적 소형성” 이외에 2.2에서 살펴볼 “극미적 소형성”의 경우에서도 일부 소수 ‘적다’류의 용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다’류가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혁다’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세한국어에서 ‘적다’류가 사용되는 맥락(“물리적인 크기의 작음”)에서 ‘혁다’류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혁다’류가 선대형, ‘적다’류가 후대형으로서 ‘혁다’류의 자리를 점차 통시적으로 ‘적다’류가 대체해간다는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한글 창제 이후부터 용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나. 뜨거운 纖悉 혼 法이 【纖은 혀글씨라】 몬 ㄴ즈니 업슨 ㄷ ㄱ즐비니 <법화경언해¹⁴⁶³ 2:196ㄴ>

다. 므슴 區區히 사름 아로몰 마즈리오 【區區는 혀근 양이라】 (何用區區逆人知리오) <금강경삼가해언해¹⁴⁸² 2:57ㄱ>

(7가)는 유행병[天行病]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한 증상에 물속의 細苔를 찢어 즙을 내어 복용하게 하는 처방으로서 여기서 ‘므렛 효근 잇’은 한문 원문의 ‘水中細苔’에 대응한다. 전통적으로 유행병 치료에서 ‘므렛 효근 잇[水中細苔]’가 약재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¹²⁾, 여기서 ‘효근’은 단순한 물리적 작음이라기보다 물속의 붙어 자라는 이끼 및 수초류가 지닌 가늘고 미세한 질감과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7나)의 ‘纖悉 혼 法’은 『법화경』 「信解品」의 窮子譬를 해석하는 주석부에 나타난다. 해당 문맥은 부유한 長者의 집에 吏民·僮僕과 여러 장엄이 갖추어진 모습을 一乘法의 완전성에 비유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僮과 僕이 각각 가벼운 일과 무거운 일을 맡는다고 설명한 뒤, 이를 一乘法 가운데 所治·所役 및 輕重纖悉之法이 빠짐없이 갖추어진 것에 비유한다. 이때 ‘纖은 혀글씨라’라는 협주는 纖을 “가늘고 미세함”의 의미로 풀이한 것으로, ‘혀다’류가 실제 사물의 크기가 아니라 법의 세밀한 항목까지 포괄하는 극미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7다)의 ‘區區는 혀근 양이라’는 한문 원문 ‘何用區區逆人知’의 ‘區區’에 대한 협주이다. 해당 구절은 도가 자기에게 있으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굳이 구구하게 남의 알아줌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선종적 문맥으로 이해된다. ‘區區’의 사전적 의미도 “微小”, “微不足道”로 풀이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는데, ‘혀근 양’에서 ‘혀근’은 구체물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나 양상이 사소하고 미미한 정도에 머무름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용례들은 ‘혀다’류가 일반적인 “물리적 소형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낮은 척도값에 놓이는 미세함과 미미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7가)의 ‘효근 잇’은 細苔에 대응하여 물질적 혹은 질감적 차원의 미세성을 나타내고, (7나)의 ‘纖은 혀글씨라’는 一乘法 안에 세밀한 법까지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세목에 대한 미세성을 드러내며 (7다)의 ‘혀근 양’은 區區의 사소하고 미미한 양상을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용례는 ‘혀다’류가 “작음[小]”의 의미를 일반적 소형성보다 더 미세한 차원으로 세분하여 표현하는 “극미적 소형성”의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혀다’류의 “극미적 소형성”은 특히 의학 문헌에서 피부 병변의 외형을 묘사하는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8) 큰 단독이어든 모싯 불휘와 ㅅ 불휘와를 디혀 브티라 ... 효근 여러 가짓 단독이어든 가마 밍 마춤 아랫 ㅎ을 하나 저그나 ㄴ라 들기 알 소뻬 흰 물 씻거 블로디 ㅎ르 세 번곰 브르라(大丹瘡癰紵麻根傳之 ... 少小諸腫丹毒 伏龍肝不拘多少爲末 以鷄子白和傳之 日三次) <구급간이방언해¹⁴⁸⁹ 3:54ㄱ-55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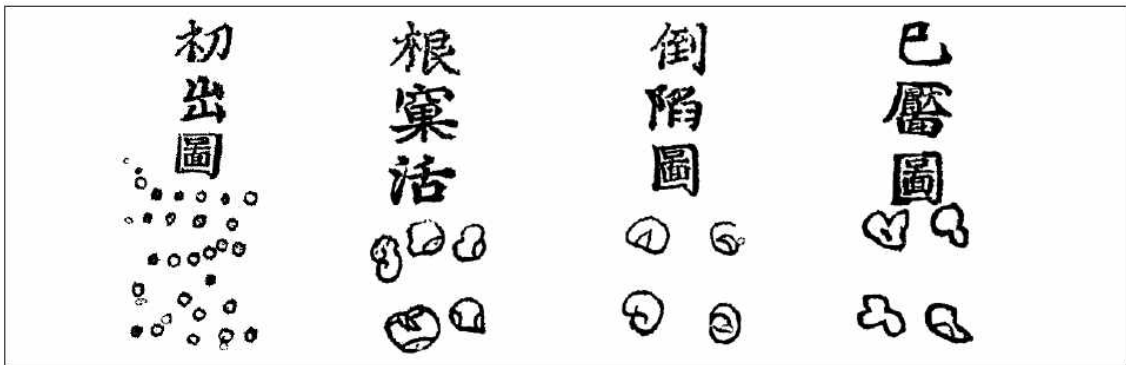
12) 당나라 시기에 간행된 음식을 통한 치료 및 처방에 대한 최초의 의서인 『食療本草』에서도 ‘又水中細苔主天行病心悶擣絞汁服’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구자훈·한민섭 2018: 42, 375-376 참조).

(8')

가. 득효방의 글오디 쓰리며 형역 증후를 분변코자 홀딘덴 귀 츠며 큰 글 츠며 구불이 츠며 발 글티 츠며 귀 뒤해 불근 실 ㄴ튼 핀줄 시슈모로 험찰홀 거시라 그러나 모로미 가슴 스이를 보면 효근 덩이 조쌀ㄴ티 도드니야 진짓 역질이라(得效方曰 欲辨疹痘證 以耳冷鼻冷尻冷脚稍冷 及耳後有紅縷赤脉驗之 然須見心胸間細點如粟起則爲眞) <언해두창집요₁₆₀₈ 상: 11ㄴ>

나. 이틀 사으래 비르서 현형호야 잠깐 ㄴ 도돌 저기 조쌀 ㄴ트며 기장쌀 ㄴ트며 록두 ㄴ트며 진주ㄴ티 빛나고 물고미 도호니라 (二三日始見微微方欲出者 如粟米如黍米如菉豆大似水珠 光澤明淨者佳) <창진방촬요₁₅₁₇ 25ㄱ>

(8'') 『의방류취』 권263 소아문에 실려 있는 두창 모식도(오재근 2021: 44)



(8)에서 ‘효근 여러 가짓 단독’의 ‘효근’은 한문 원문의 ‘少小’에 대응하며, 작고 자잘한 여러 피부 병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丹毒은 환부의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열이 나는 병증으로 파악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병변의 양상 혹은 외형을 묘사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효근’의 구체적 외형은 두창·창진류 병변을 묘사하는 다른 의학 문헌의 표현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8'가)에서는 두창 발병 초기의 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슴 사이에 “효근 덩이 조쌀ㄴ티” 돋는지를 확인한다고 하였고, (8'나)에서는 병변이 처음 드러나는 양상을 “조쌀 ㄴ트며 기장쌀 ㄴ트며 록두 ㄴ트며”라고 설명한다. 이는 두창 초기 병변이 粟米, 黍米, 菉豆 등 곡식의 낱알 크기에 비견될 만큼 작고 자잘한 양상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 준다.¹³⁾

아울러 『의방류취』 권263 소아문에 실린 두창 모식도 역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8''). 이러한 시각 자료를 함께 고려하면, 의학 문헌에서 병변을 묘사할 때 사용된 ‘혀다’류는 단순한 물리적 작음이 아니라, 좁쌀·기장쌀·녹두와 같은 낱알에 비견되는 작고 세밀한 작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 용례에서 ‘효근’은 일반적 소형성보다 더 낮은 척도값에 놓이는 “극미적 소형성”으로서 의학적 관찰에서 병변 크기를 판별하는 진단적 비유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13) 명대 의서 『證治準繩』의 幼科에도 두창이 2-3일째 처음 나타날 때 粟米大, 黍米大, 綠豆大와 같고 水珠처럼 광택이 있는 것이 좋다고 설명되어 있어, 이러한 낱알 비유가 두창 병변 묘사의 일반적인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 가. 그 형역 나미 다숫 가짓 일후미 잇느니 간장엔 슈포이니 일후미 뿌리라 눈물 나미 물
 ㅁㅅ요모로 그 비치 프르고 효ㅁ니라 ... 심장엔 반이니 일후미 도야기라 피를 ㅁ슴알식
 비치 붉고 효고미 뿌리에서 버그니라 비장엔 딴이니 일후미 여즈자기라 효고미 도야기
 에서 벽고 피를 ㅁ료매 ㅁ슴아로모로 비치 불거누러호디 열트니라 곳물와 눈뜨른 나미
 하모로 굴근 형역과 뿌리와는 다 굴고 피는 안해 모다 이서 나미 하디 아니호모로 도야
 기와 여즈자기와는 다 효ㅁ니라(其瘡出有五名 肝爲水疱 以淚出如水 其色靑而小 ... 心爲
 癰主 心血色赤而小 次於水 脾爲疹小次於癰瘡 主裏血故色赤黃而淺 涕淚出多故膿疱水疱
 皆大 血營於內 所出不多故癰疹皆小) <창진방촬요¹⁵¹⁷ 3ㄴ-4ㄱ>
- 나. 중이 경흐니는 세 물 저즈려 도드며 쏘 굴굼 효고미 흔가지 아니며 쏘 머리와 느긔 드
 물며 쏘 눈 안해 업스며 쏘 터히 불그며 쏘 염글오 빗나니라(輕者 作三次出 大小不一等
 頭面稀少 眼中無 根窠紅 肥滿光澤) <창진방촬요¹⁵¹⁷ 22ㄱ>
- 다. 나을 닷쇄에 그 형역이 굴그며 효고미 흔 등이 아니오 터히 붉고 빗나고 뭍거든 약을
 말오 빅빅기 뵈오 ㅁ든고 보힌 짓빋 곧고 즈긔오 갈커든 십일미목향산 달힌 프레 칠미
 육두구원을 ㅁ썬 ㄴ리우라(四五日其瘡大小不一等 根窠紅光澤明淨不必藥 稠密陷頂灰白色
 瀉渴者 宜服十一味木香散 送下七味肉豆蔻圓)<창진방촬요¹⁵¹⁷ 25ㄴ>
- 라. 형역이 효가 검고 ㅁ르며 풍긔 툃과 입시울와 목익 침노햐 브서 돈든햐며 가스미 노
 과 내와드닌 다 고티디 몬햐느니라(瘡小黑而焦風攻頤頤唇項腫硬 或胸高而突者竝皆不治)
 <창진방촬요¹⁵¹⁷ 16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창·창진류 병변은 좁쌀, 기장쌀, 녹두 등 곡식의 낱알에 비견될 만큼 작고 세밀한 외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9)의 용례들에서도 이러한 병변 묘사에서 ‘혁다’류가 단순한 크기 표현을 넘어, 병변의 크기와 형태를 판별하는 의학적 관찰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癰·疹과 같이 비교적 작게 둔는 병변을 水疱·膿疱와 구별하거나(9가), 병변의 大小不一(9나), 광택, 색, 건조 여부 등과 함께 병세의 경중과 예후를 판단하는데(9다, 라) ‘혁다’류가 사용되어 일반적인 물리적 소형성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 표면에 돋아나는 병변의 작고 세밀한 외형을 포착하는 “극미적 소형성”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경에서 ‘혁다’류는 유정물 가운데 극히 미세한 생명체를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10)

- 가. 道 비호는 무른 모로매 三業을 닷골띠니 三業이 조티 아니햐면 안들 ㅁ슴 햐리오 無情을 드틀와 니플 侵勞티 아니햐며 有識을 蜎螟도 보차디 아니햐느니 【蜎螟은 혁근 벌에라】 기픈 딛 내토 ㅁ히 그 물고믈 가줄비디 몬햐리며 ㄴ는 눈도 그 햐요믈 가줄비디 몬햐리라(學道之流는 須修三業이니 三業이 不淨햐면 知而奚爲리오 無情을 罔侵塵葉햐며 有識을 無惱蜎螟햐느니 幽澗도 未足比其清이며 飛雪도 無以方其素ㅣ니라) <선종영가집 언해¹⁴⁶⁴ 하:76ㄱ-77ㄱ>
- 나. 濕生衆生은 봄철와 녀름쳐레 덥듯흔 氣分에 축축흔 짜해서 햐근 衆生이 飜生햐야 구믈 구믈 치느니 이 무렛 衆生들홀 닐온 濕生衆生이라 <몽산화상육도보설¹⁵⁶⁷ 9ㄴ>

(10가)는 수행자의 삼업이 청정해야 함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여기서는 무정물에 대해서는 먼지와 잎조차 침범하지 않고, 유정물에 대해서는 蝸蟻와 같은 작은 벌레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여, 수행자의 청정성과 자비가 매우 미세한 존재에까지 미침을 강조한다. 특히 ‘蝸蟻’에 대한 협주로 ‘허근 벌레’라고 제시된 것은 蝸蟻이 유정물 가운데 극히 작은 벌레류로 이해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해석은 불경에서 자주 보이는 ‘蝸飛蠕動之類’라는 표현과도 관련된다. 蝸飛는 미세한 날벌레, 蠕動은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벌레로 풀이되며,¹⁴⁾ 蝸飛와 蠕動과 같은 미세한 벌레류 역시 유정의 범주 안에서 불교적 교화와 자비의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⁵⁾

(10나)의 ‘하근 衆生’도 ‘허근 벌레(10가)’와 같은 의미 층위에서 이해된다. 濕生衆生은 봄과 여름의 덥고 습한 기운 속에서 촉촉한 땅에 생겨나 구물구물 움직이는 작은 중생으로 설명된다. 濕生는 불교의 四生說 중 하나로서 습기로부터 생겨나는 유정물의 부류로 정의되며, 날벌레, 모기, 돈벌레 등에 해당한다.¹⁶⁾ 이에 ‘하근 衆生’은 사회적 혹은 도덕적으로 낮거나 하찮은 존재를 뜻한다기보다, 종교적인 의미로서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벌레류와 같은 유정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정리하자면, (10가)의 ‘허근 벌레’와 (10나)의 ‘하근 衆生’은 모두 불교에서 유정물의 범위를 설명할 때 언급되는 미세한 벌레류를 가리킨다. 여기서 ‘허다’류는 대상의 가치나 위상을 낮추어 평가하는 의미라기보다, 유정의 범주 안에서도 매우 작은 생명체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10)에서의 ‘허다’류는 일반적인 물리적 소형성을 넘어, 미세한 벌레류와 같은 극히 작은 유정물을 지시하는 “극미적 소형성”의 예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細, 纖, 如粟 등의 용례와 더불어, 한문 원문의 ‘小小’에 대응하는 ‘허다’류 역시 “극미적 소형성”의 의미를 드러낸다.

(11)

가. 내 보되 이 곤흔 무렛 사르몬 五無間 殺害호던 罪를 덜며 효근 惡業이 惡趣에 빠러덥 거슬 즉재 버서나리이다(我觀如是輩人 除五無間殺害之罪 小小惡業 合墮惡趣者 尋卽解脫) <월인석보¹⁴⁵⁹ 21:127>

나. 오뉴월 스이에 수세의 효근 너출에 손을 거더 음간호여 두냥 반만 간스호엿다가(五六月 間取絲瓜小小蔓藤의絲陰乾約一兩半重) <언해두창집요¹⁶⁰⁸ 상:6>

(11가)는 임종하는 중생이 한 부처의 이름이나 한 보살의 이름, 또는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계송이라도 들으면, 본래 악취에 떨어질 만한 小小惡業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서 ‘효근 惡業[小小惡業]’은 ‘五無間 殺害호던 罪[五無間殺害之罪]’와 대비되어 제시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업보의 무게와 죄악의 정도가 매우 작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에 (11가)에서 ‘허다’류는 종교적 그리고 추상적 차원에서 죄업의 미세함을 나타내는 “극미적 소형성”의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11나)는 오뉴월 사이에 수세미의 작은 넝쿨 줄기를 채취하여 음건해 두었다가, 정월 초하루 자시에 달인 물로 아이의 몸을 씻어 태독을 제거하고 두창을 예방한다는 처방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약재의

14) 【蝸飛蠕動】(雜名) 蝸飛者飛蟲也。蠕動者蛆蟲也。過度人道經曰：「諸天人民蝸飛蠕動之類。」龍舒淨土文二曰：「蝸飛謂微細飛蟲也，蠕動謂微細蛆蟲也，若此者佛尚化度，況於人乎？」<佛學大辭典>

15) 如是，舍利弗！其大目如來告其比丘言：「如結願學諸菩薩道者甚亦難。所以者何？菩薩於一切人民及蝸飛、蠕動之類不得有瞋恚。」(『阿閼佛國經』卷1)

16) 云何濕生。謂有情類生從濕氣是名濕生。如蟲飛蛾蚊蚰蜒等。(『阿毘達磨俱舍論』卷8)

재료인 ‘수세의 효근 너출[絲瓜小小蔓藤]’에서 ‘효근[小小]’은 약재로 쓰이는 수세미 넝쿨의 작고 가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11나)의 ‘혁다’류도 약재의 미세한 성상을 지시하는 표현으로서의 “극미적 소형성”의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1가)와 (11나)의 ‘혁다’류 용례는 지시 대상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반적 소형성보다 더 낮은 척도 값의 작음, 곧 “극미적 소형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혁다’류가 나타내는 “극미적 소형성”은 반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앞서 2.1에서 ‘효근 臣下’와 ‘굴근 臣下’가 신분적·정치적 위상의 낮고 높음과 같이 “평가적 소형성”으로서의 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4). 이와 유사하게 “극미적 소형성”의 영역에서도 ‘혁다’류는 ‘굵-’ 또는 ‘크-’와 대립하여 척도상의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 경우의 의미 대립은 가치나 위상의 차이이기보다, 대상의 크기·규모·세밀도와 관련된 의미상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가. 효근 풍류와 굴근 풍류들 다 희이시며(動細樂大樂) <번역박통사₁₅₁₇ 상:71>

나. 그럴식 못겨리 나면 그르메 얼미여 호고 므리 흐리면 그르메 업고 므리 몰가 퇴 업스면
큰 것과 혁근 것과를 다 보느니라(故로 波搖호면 影碎호고 水濁호면 影昏호고 清明止澄호면 巨細斯鑑호느니라) <법집별행록₁₅₂₂ 80>

다. 諸着을 여희의 호노니 諸着은 여러 가짓 브티동킨 거시니 굴그면 六塵엿業이오 혁그면 二乘法이라 <석보상절₁₄₄₇ 13:38>

(12가)는 西湖를 유람하는 관원들이 龍船과 여러 배에 올라 잔치를 베풀고, ‘효근 풍류[細樂]’와 ‘굴근 풍류[大樂]’를 연주하며 강을 따라 즐기는 장면이다. 여기서의 ‘細樂’과 ‘大樂’은 단순히 추상적인 “작은 음악” 또는 “큰 음악”을 뜻한다기보다, 연회와 유람에서 동원되는 음악 편성 또는 음향 규모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효근 풍류’는 관현악적이고 상대적으로 섬세한 음악, ‘굴근 풍류’는 징 또는 북과 같이 규모나 음향이 큰 음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이에 (12가)는 ‘혁다’류가 ‘細’에 대응하여 ‘굵-’와 반의 관계를 이루며, 크기·규모·음향의 세밀도와 관련된 “극미적 소형성”의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혁다’류는 ‘굵-’ 이외에도 ‘크-’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12나)는 마음의 청정성과 고요함을 물의 비춤에 비유한 대목이다.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부서지고 물이 흐르면 그림자가 어두워지지만, 물이 맑고 고요하면 크고 작은 모든 형상이 빠짐없이 비친다는 비유로서 定과 慧가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큰 것과 혁근 것[巨細]’은 크기 척도의 양극단을 병렬함으로써 그 사이에 포함되는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12나)의 ‘혁근 것[細]’은 단순히 작은 대상을 지시한다기보다, ‘큰 것[巨]’과의 대립 속에서 크기 척도의 최하단에 놓이는 작고 미세한 대상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12나)의 ‘혁다’류는 ‘크-’와 반의 관계를 이루며, “극미적 소형성”을 나타내는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12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굵-’와 ‘혁-’의 대립도 앞서 (12나)에서 살펴본 양상과 마찬가지로 양극단을 통해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12나)에

17) ‘細樂’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指管弦之樂 與羅鼓等音響大的音樂相對而言’로 풀이한 이육화(2013: 447 각주 82)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서 ‘크-’와 ‘혁-’가 크기 척도상의 양극단을 병렬하여 물에 비치는 모든 형상을 포괄한다면, (12다)에서 ‘굵-’와 ‘혁-’는 수행자가 여의어야 할 집착의 전체 범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2다)에서는 ‘굵-’와 ‘혁-’를 통하여 ‘수행자의 거칠고 감각적인 집착[六塵애業]’부터 ‘수행자에게 남아 있는 보다 미세한 법에 대한 집착[二乘法]’까지를 양극단으로 제시함으로써 ‘수행자가 여의어야 할 여러 집착[諸著]’의 전체 범위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12다)의 ‘혁-’는 단순히 작은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층위 가운데 보다 작고 세밀한 영역을 가리킨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12다)에서는 ‘혁다’류가 ‘굵-’와의 반의 관계 속에서 물리적 크기를 넘어 불교의 수행론적 차원의 “극미적 소형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3.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 의미

본고에서 중세한국어 ‘혁다’류의 또 다른 의미 영역으로 설정한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이란 대상의 크기가 작다는 사실을 단순히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위 범주 안에서 특정 하위 유형을 구별하거나 분류하는 의미 기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작음[小]”의 의미가 개별 대상의 물리적 크기나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작은 종류의 X” 또는 “상위 범주 안의 하위 부류”로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검토할 대상인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은 대상의 가치나 위상을 낮추는 “평가적 소형성”, 일반적 소형성보다 더 미세한 크기를 나타내는 “극미적 소형성”과 구별되며, 특정 명사와 결합하여 대상의 종류나 하위 범주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종차적 소형성”은 주로 의학서에서 처방의 재료를 언급하는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때 ‘혁다’류는 대상의 크기가 작다는 사실을 단순히 서술하기보다, 상위 범주 안에서 특정한 하위 유형을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3)

가. 棘針 효근 대초나뭇 가시 <구급간이방언해₁₄₈₉ 3:20ㄴ>

나. 山梔 효근 지지 <구급간이방언해₁₄₈₉ 3:56ㄴ>

다. 山梔子 효근 지지 씨 <구급간이방언해₁₄₈₉ 3:58ㄱ>

라. 山梔子 하근 지지 씨 <구급간이방언해₁₄₈₉ 2:101ㄴ>

특히 (13)의 경우 한문 원문에 명시적으로 ‘小’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棘針’과 ‘山梔子’가 각각 ‘효근 대초나뭇 가시(13가)’, ‘{효근, 하근} 지지 씨(13나, 다, 라)’로 언해되었다. 즉, 해당 약재명을 단순 음역하거나 혹은 축자역한 것이 아니라 ‘혁다’류를 통해 해당 약재가 속한 상위 식물 범주 안에서의 하위 유형성을 언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3가)의 ‘효근 대초나뭇 가시[棘針]’에서 ‘棘’은 ‘棗’와 구별되는 작은 대추나무류, 즉 멧대추나무로 풀이된다. 『說文解字』에서는 ‘棘’을 ‘小棗叢生者’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석에서도 ‘小棗樹’는 무더기로 자라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棘’은 ‘棗’보다 낮고 가시가 많다고 설명한다.¹⁸⁾ 또한 『中藥大辭典』을 비롯하여 『證類本草』¹⁹⁾, 『本草綱目』²⁰⁾ 등에서도 약재명

18) 小棗樹叢生 … 棘庠於棗而束尤多。(『說文解字注』)

19) 白棘, 一名棘針, 一名棘刺。(『證類本草』)

으로서의 棘針은 酸棗의 가시, 곧 땃대추나무류의 가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효근 대초나뭇 가시’는 단순히 “작은 대추나무 가시”가 아니라, ‘棘’ 또는 ‘酸棗’라는 ‘대추나무[棗]’의 하위 식물 유형으로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13가)의 ‘효근’은 ‘대추나무[棗]’와 ‘땃대추나무[棘, 酸棗]’를 구별하는 종차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3나, 다, 라)의 ‘{효근, 하근} 지지 (씨)’는 한문 원문 山梔(子)에 대응하는데, 일반적으로 山梔子와 (水)梔子의 구분은 전통 본초 자료와 현대 식물·약재 연구에서 모두 열매의 크기와 형태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本草蒙筌』에서는 山梔子에 대하여 집에서 재배한 것은 통통하고 크고 길어서 염색용으로 쓰이고, 산골에서 나는 것은 둥글고 작고 얇아서 약 용에 적합하다고 하였다.²¹⁾ 이는 山梔子가 단순히 “작은 치자”가 아니라, 치자류 안에서 약 용으로 선호된 작고 둥근 열매로서 인식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구분은 『中國植物志』에 서도 확인되는데, 梔子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습성, 잎의 형태와 크기, 열매의 형태와 크기에 변이가 생기며, 그 변이는 주로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山梔子로, 열매가 난형 또는 거의 구형이고 비교적 작으며, 다른 하나는 水梔子로, 열매가 타원형 또는 장원형 이고 비교적 크다. 또한 전자는 약용, 후자는 염료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 된다.²²⁾

현대 약재 연구로서 산치자와 수치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Qian et al. (2024)도 이 러한 전통적인 구분을 뒷받침한다. 기본적으로 산치자는 약재 시장에서 수치자와 구별되어 유통되며, 일반적으로 작고 둥근 산치자는 약용으로, 크고 길쭉한 수치자는 염색용으로 쓰 인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25개 표본을 대상으로 형태와 성분을 비교하여 수치자가 대체로 산치자보다 크고 길다고 분석된 논의를 참고한다면, 실증적으로 산치자의 상대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13나, 다, 라)의 ‘{효근, 하근}지지’는 단순히 “크기가 작은 치자” 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 염료용으로 사용되는 수치자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약재용으로 사용되는 품종인 산치자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에서 확인한 ‘혀다’류는 단순히 대상의 크기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범주 안에 서 특정한 하위 유형을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효근 대초나뭇(13가)’는 ‘대추나무[棗]’ 類에 속한 ‘땃대추나무[棘, 酸棗]’를, ‘{효근, 하근} 지지 씨(13나, 다, 라)’는 ‘치자’類에 속 한 산치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13)의 ‘혀다’류는 “평가적 소형성”이나 “극미적 소형성”이 아 니라, “작은 유형의 X” 또는 “상위 범주 안의 하위 유형”을 표시하는 “종차적 소형성”의 용 레로 분석할 수 있다.

(14)

가. 礞은 혀근 돌히오 <월인석보₁₄₅₉ 10:117ㄴ>

나. 은홍 빗체 효근 텃곳 문 혼 비단(銀紅西蕃蓮) <번역노걸대₁₅₁₇ 하:24ㄴ>

나. 은홍 빗체 西蕃蓮 문 혼 비단(銀紅西蕃蓮) <노걸대언해₁₆₇₀ 하:22ㄱ>

(14)의 용례들도 앞서 살펴본 (13)과 마찬가지로, ‘혀다’류가 특정 상위 범주 안의 하위 유 형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경우로 분석할 수 있다. (14가)에서는 ‘礞’의 협주로 ‘혀근

20) 白棘條, 乃酸棗未長大時枝上刺也及至長成, 其實大, 其刺亦少。故棗取大木, 棘取小科。(『本草綱目』)

21) 家園栽者, 肥大且長 … 只供染色之需 … 山谷產者, 圓小又薄, 堪爲入藥之用。(『本草蒙筌』)

22) 一類通常稱爲山梔子, 果卵形或近球形, 較小另一類通常稱爲水梔子, 果橢圓形或長圓形, 較大。據稱 前者適爲藥用, 後者適爲染料用。(『中國植物志』)

돌’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說文解字』를 비롯하여 관련 주석에서는 ‘礫’을 ‘小石’ 또는 ‘石細者’ 등으로 풀이한 것을 참고한다면 (14가)의 ‘허근 돌’은 우연히 또는 단순히 “크기가 작은 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돌[石]’이라는 상위 범주 안에서의 작은 돌, 곧 자갈·조약돌류를 구별하는 명칭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4가)의 ‘허근’은 ‘돌[石]’의 하위 유형인 ‘礫[조약돌]’을 표시하는 “종차적 소형성”의 의미 기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

(14나)에서는 ‘西蕃蓮’이라는 꽃 이름이 ‘효근 련꽃’으로 언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번화는 현대에서 ‘시계꽃’으로 불리며 연꽃과 형상이 유사하지만, 연꽃의 지름이 40cm 내외인 반면 서번화는 지름이 5cm 내외이다.²³⁾ 즉, ‘련꽃’이 상위 꽃 이름이라면, (14나)의 ‘효근 련꽃’은 크기나 형상이 상대적으로 작은 하위 유형의 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종차적 소형성”의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식물명이나 사물명에서 확인되는 “종차적 소형성”과 더불어, ‘혁다’류는 관직이나 직임의 하위 범주를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15)

가. 𡵓손이 효근 벼슬 ㅎ여서 와 𡵓여든 萬石君이 朝服 𡵓고 보고 일흠 브르디 아니ㅎ며
(子孫이 爲小吏ㄹ야 來歸謁이든 萬石君이 必朝服見之ㄹ고 不名ㄹ더라) <번역소학¹⁵¹⁸ 9:83ㄱ>

나. 子孫이 효근 벼슬 ㅎ연느디라 와 𡵓여든 萬石君이 만드시 朝服 𡵓어 보고 일흠 𡵓으디 아니ㅎ며 <소학언해¹⁵⁸⁸ 6:77ㄱ>

(15)는 萬石君 石奮의 집안 예법을 서술하는 장면으로, 자손이 小吏가 되어 돌아와 𡵓면 萬石君이 만드시 朝服을 입고 그를 만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史記』에서도 과거 석분이 15세에 小吏가 되어 한고조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²⁴⁾ 여기서 ‘효근 벼슬[小吏]’는 “보잘것없는 벼슬”이라기 보다는, 관직 체계 안에서 낮은 직급의 관리 또는 하급 실무 관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15)의 ‘효근’은 ‘吏’ 또는 ‘벼슬’이라는 상위 범주 안에서 하위 직급을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위·신분상의 “분류적 소형성”의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16). 內豎는 𡵓스왔는 혁근 臣下ㅣ라 <내훈¹⁵⁷³ 1:39ㄴ>

(16') 文王이 世子 ㄸ외야 겨실 제 王季의 朝ㄹ샤디 날마다 세 번곰 ㅎ더시니 들기 처섬 울

23) 시계꽃은 ‘passion flower’로 불리며 열매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열대 과일 패션푸르트이다.



24) 高祖東擊項籍，過河內，時奮年十五，爲小吏，侍高祖。(『史記』，「萬石張叔列傳」)

어든 옷 니브샤 寢室入 門 밧긔 니르르샤 內豎드려 무려 니르샤디 오닐 安否 | 엇더
 ㅎ시뇨 內豎 | 닐오디 便安ㅎ시이다 커든(文王之爲世子에 朝於王季ㅎ샤디 日三ㅎ더시
 니 雞初鳴而衣服ㅎ샤 至於寢門外ㅎ야 問內豎之御者ㅎ야 曰ㅎ샤디 今日安否 | 何如오
 內豎 | 曰호디 安이라커든) <내훈¹⁵⁷³ 1:39ㄴ-40ㄱ>

(16)의 ‘혀근 臣下’ 역시 ‘효근 벼슬(15)’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6)은 주나라 文王이世子였을 때 아버지 王季에게 하루 세 번 문안하였다는 일화를 인용한 장면이다. ‘되스왓는 혀근 臣下[內豎]’는 “안팎의 명령 전달을 맡은 小臣의 부류²⁵⁾” 혹은 “內庭의 작은 신하²⁶⁾” 정도로 풀이되는데, 여기서 ‘혀근’은 內豎에 대하여 (4)와 같이 도덕적으로 낮은 신하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궁중 내부에서 시중과 전달을 맡는 하급 직위의 신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16)의 ‘혀근’ 역시 “평가적 소형성”보다는 ‘臣下’라는 상위 범주 안에서 특정한 하위 직위를 표시하는 “분류적 소형성”의 용례로 분석할 수 있다.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을 나타내는 ‘혀다’류에서도 ‘굽-’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7) 大蒜 굴근 마늘 小蒜 효근 마늘 <구급간이방언해¹⁴⁸⁹ 6:55ㄱ>

(17')

가. 小蒜 月乙賴伊 <鄉藥集成方¹⁴³³ 85, 本草菜部: 下品>

나. 蒜 마늘 쥔 一名葫又小蒜들뢰 <훈몽자회¹⁵²⁷ 상: 7ㄱ>

(17)의 ‘굴근 마늘’과 ‘효근 마늘’은 각각 한문 원문의 大蒜과 小蒜에 대응한다. 이때 ‘효근 마늘[小蒜]’은 단순히 크기가 작은 마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굴근 마늘[大蒜]’과 구별되는 별도의 하위 유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小蒜’의 향약명으로 ‘月乙賴伊’이 제시된 점(17'가), ‘小蒜’이 ‘들뢰’, 즉 달래로 풀이된 점(17'나)을 고려한다면 ‘小蒜’이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가 작은 마늘”이 아니라 독립된 식물명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굴근 마늘[大蒜]’과 ‘효근 마늘[小蒜]’에 대하여 ‘굽-’와 ‘혀다’류가 단순한 물리적 크기의 반의 관계를 이루는 용례로 볼 수 없다. 여기서 ‘굴근 마늘[大蒜]’은 “일반적인 마늘”을 가리키고, ‘효근 마늘[小蒜]’은 “달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17)에서의 반의 관계는 ‘마늘’류라는 상위 범주 안에서 大蒜과 小蒜이라는 두 하위 품종을 구별하는 “종차적 소형성”의 용례 분석할 수 있다.

25) 內豎, 小臣之屬, 掌外內之通命者。(『禮記正義』)

26) 內豎, 內庭之小臣。(『小學集註』)

3. ‘헝다’류의 통시론

앞서 2장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를 중심으로 ‘헝다’류의 의미 기능을 평가적 소형성, 극미적 소형성,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헝다’류가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의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음”의 세부적인 의미 영역들에 특화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대한국어 시기에 들어서면 ‘헝다’류는 점차 문중 빈도가 낮아지고,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세부적인 의미 영역도 대부분 ‘적다’류에 의해 표현되거나, 경우에 따라 한문 원문의 표현이 언해문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통시적 변화를 ‘헝다’류와 ‘적다’류 사이의 의미 영역 재편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중세한국어에서 ‘헝다’류와 ‘적다’류, 두 계열은 단순한 동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미 기능과 통사적 환경에 따라 일정한 분화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헝다’류는 대부분 ‘효근’, ‘허근’, ‘하근’ 등 관형사형으로 나타나며, 주로 특정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평가적·극미적·분류적 소형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18)

- 가. 論中엿 眞如 三昧 脩習홈과 體相이 키 곤고 저기 다르니(與論中엿 修習眞如三昧와 體相이 大同小異호니) <원각경언해¹⁴⁶⁵ 하2-1:14>
- 나. 내 佛眼으로 信 等 諸根이 利鈍을 보아 濟度호얌직호니를 조차 곤고대 내 名字 닐오미 곤디 아니호며 年紀 크며 저그며(我以佛眼, 觀其信等諸根利鈍, 隨所應度, 處處自說, 名字不同年紀大小) <월인석보¹⁴⁵⁹ 17: 9>
- 다. 이 三昧를 行호야사 이 菩薩入 色相이 크며 저균과 舉動이 나스며 머므롬물 能히 보리니(行此三昧 乃能見是菩薩色相大小 威儀進止) <석보상절¹⁴⁴⁷ 20:40>
- 라. 瓔珞經에 十地 第四를 일후미 須陀洹이라 호시니 決斷히 저근 果 | 아니로다(如瓔珞經에 十地第四를 名須陀洹이라호시니 斷非小果矣로다) <능엄경언해¹⁴⁶¹ 7:26>

(19)

- 가. 忽 大臣 일후미 羅睺 | 라 호리 四兵 니르와다 大王을 주기습고 쏘 四兵을 곳 나라해 보 내야 第一 太子 주기고 버거 第二 太子를 자브니 못 아기 앓이 저근 又 나랏 王이 드외야 거시더니 그 저근 王이 양직 마장 端正호시고(爾時 波羅奈大王有一所重大臣 名曰羅睺 起四種兵一一所謂象兵 車兵 馬兵 步兵 伐波羅奈國 斷大王命 復遣四兵 往詣邊國 殺第一太子 次復往收第二太子 其最小弟作邊小國王 其小王者 形體殊大 端正殊妙) <월인석보¹⁴⁵⁹ 20:102ㄴ-103ㄴ>
- 나. 粟散은 곧 나랏 저근 王이니 天下에 흐러슈미 조히 함 곤홀씨라(粟散은 卽邦國小王이니 散於天下호미 如粟之多홀시라) <능엄경언해¹⁴⁶¹ 6:15ㄴ>

이에 비해 ‘적다’류는 15세기부터 부사형, 명사형, 관형사형 등 다양한 활용형을 보이며 (18), 일반적 소형성뿐 아니라 일부 ‘헝다’류의 의미 영역에도 사용되기 시작한다(19). 이러한 차이는 근대한국어 이후 ‘헝다’류가 점차 사라지고 ‘적다’류가 그 의미 영역을 대체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즉 근대한국어 시기에 들어 나타나는 ‘헝다’류의 소멸은 단순한 어휘 교체가 아니라, 제한된 활용형과 특정 의미 영역에 묶여 있던 ‘헝다’류가 더 생산적이고 일반적인 소형성 형용사인 ‘적다’류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헝다’류와 ‘적다’류는 모두 ‘작음[小]’의 의미 영역과 관련되지만, 양자는 동일한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헝다’류는 주로 평가적 소형성, 극미적 소형성,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처럼 일반적 물리 소형성과 구별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였다. 반면 ‘적다’류는 크기, 수량, 정도, 나이 등 보다 일반적인 소형성 및 소량성의 의미를 폭넓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후기중세한국어에서 ‘작음’의 의미 영역이 단일한 형용사에 의해 포괄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어휘 형식 사이에서 일정하게 분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화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도 ‘적다’류가 일부 ‘헝다’류의 의미 영역에 사용되는 경우가 확인된다. 가령 ‘적다’류가 ‘細’에 대응하여 “극미적 소형성”을 나타내거나, “평가적 소형성”을 수반하는 일부 용례에서 ‘적다’류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15세기부터 ‘적다’류가 ‘헝다’류의 의미 영역에 부분적으로 진입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헝다’류와 ‘적다’류의 관계는 고정된 상보분포라기보다, 공시적으로는 의미 영역의 분화가 존재하면서도 통시적으로는 ‘적다’류가 점차 확장되는 경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 2장에서는 후기중세한국어 ‘헝다’류의 의미를 공시적으로 평가적 소형성, 극미적 소형성, 종차 및 분류적 소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3장에서는 이러한 ‘헝다’류의 의미 기능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토한다.
- 15-16세기에는 ‘헝다’류가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며, 특히 앞서 본 세 가지 특수 소형성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 그러나 ‘헝다’류는 대부분 ‘효근, 혀근, 하근’과 같은 관형사형으로 나타나며, 서술형·부사형·명사형 등 다양한 활용형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 이러한 관형사형 중심의 제한적 분포는 ‘헝다’류가 일반적인 형용사라기보다, 특정 명사와 결합하여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수식어로 굳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 이에 비해 ‘적다’류는 15세기부터 저기, 저그녀, 저굶, 저근, 저고맏 등 다양한 활용형을 보이며, 통사적·의미적으로 훨씬 생산적인 양상을 보인다.
- 중세한국어 시기에도 ‘적다’류가 일부 ‘헝다’류의 의미 영역에 들어오는 예가 확인된다. 즉 ‘적다’류의 확장은 근대한국어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세한국어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 17세기 이후에는 ‘헝다’류의 문증이 급격히 약화되며, 2장에서 살핀 세 가지 의미 기능에서도 사용 예를 찾기 어려워진다.
- 그 자리는 대체로 ‘적다’류가 대신하거나, 경우에 따라 한문 원문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 따라서 ‘헝다’류의 소멸은 단순한 어휘 소실이 아니라, 중세한국어에서 세분되어 있던 ‘작음’ 의미 영역이 근대한국어 이후 ‘적다’류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3장의 논지는 아래와 같다.
 - ① ‘헝다’류의 의미 특화와 활용 제약
 - ② ‘적다’류의 생산성 및 확장
 - ③ 근대한국어 이후 대체와 소멸

4. 나오며

(생략)

참고문헌

- 남성우(1990), 國語의 語彙 變化, 국어생활 22, 국립국어원.
- 오재근(2021), 조선 의관 허준의 두창 의학과 ‘변증(辨證)’, 의사학 30, 의사학회.
- 이육화(2013), 《朴通事新註新譯(五)》, 중국학논총 39,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Dixon, R. M. W. (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R. M. W. Dixon and Alexandra Y. Aikhenvald, 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1-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urafsky, Daniel. (1996), “Universal Tendencies in the Semantics of the Diminutive.” *Language* 72(3): 533-578.
- Qian, Huimin, Yan Hu, Zhiwei Wang, Aoyu Ren, Haiwen Zhang, Shanshan Chu, and Huasheng Peng. 2024. “Comprehensive Quality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Gardeniae Fructus (Zhizi) and Shuizhizi Based on LC-MS/MS.” *Frontiers in Plant Science* 15, 1346591.